柯琴의 咳嗽·咯血醫案에 대한 硏究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內容摘要>

對于柯琴之咳嗽咯血醫案的硏究

通過柯琴醫案硏究, 得到了如下的結論.

1. 春間發生的咳嗽和咯血, 是因陰虛而相火亢盛, 所發生的病症. 其病因可以推論如下兩個方面. 其一是, 因冬不藏精而至春發生陰不足的狀態, 所以發生陰虛而相火妄動的病機. 其二是, 感寒於冬而邪氣潛伏於體內, 其潛伏之邪氣惹起陰不足的狀態, 這陰不足的狀態, 加以春之溫暖的氣候, 則更耗損體內的陰精, 所以惹起虛火上逆的病機.

2. 這病症是因誤治而發生的陰陽俱虛之變症, 所以不可以堅持滋陰降火的治法. 這病症是因陽氣不足而不可以運行藥氣, 所以使用厚膩的滋陰之劑是不適當的治法.

3. 引火歸源的治法, 可以適用于因陰精不足而惹起的陰虛陽盛之病機. 歸於本治法的處方, 有腎氣丸, 這方是由六味之劑加以附子和肉桂. 其中六味之劑的作用, 是補腎精而引火. 其中附子和肉桂的作用, 可以認爲如下兩個方面. 其一是, 輔命門之火而運行藥氣的行水機能. 其二是, 輔命門之火而誘導腎陽的化水作用.

關鍵詞 : 陰不足, 虛火, 引火歸源, 腎氣丸, 化水, 行水

Ⅰ. 序論

우리가 소설을 읽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등장 인물들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간의 물리적 제한으로 인간사의 모든 일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문학 작품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고, 이러한 간접 경험은 건조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곤 한다. 한의학을 하는 의학도로서 醫案을 학습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여건 상 충분한 실습을 통해 환자와 대면할 수 없는 현실의 여건을 고려할 때 醫案의 학습은 간접적이지만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醫案은 그 안에 기초 이론에서부터 치료에 이르기 까지 理法方藥이 모두 망라 되어 있다. 또한, 醫案들 마다 각 醫家들의 이론이 농축되어 흐르고 있기 때문에, 醫家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難題들 때문에 지금까지 醫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다행히 근자에 들어 醫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교재에 醫案이 記載되어 학생들 교육에 이용되고 있는 등 醫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봄에 발생한 喘嗽와 咯血病에 대한 柯琴의 醫案을 해석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가 제시한 引火歸源 치법의 의미와 腎氣丸의 처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Ⅱ. 本論

柯琴은 字가 韻伯이고 號는 似峰으로 그의 삶과 관련된 자료는 매우 적은 편이다. 때문에 그의 구체적인 생몰 年代 조차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淸代에 생존했던 의가로 『傷寒論』과 『내경』 등 經典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內經合璧』, 『傷寒來蘇集』 등의 서적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특히, 『傷寒論』에 대한 연구가 깊은데 후대에는 그를 상한학파의 여러 학파 가운데 辨證論治派의 일원으로 평가하고 있다[2].

柯琴의 醫案은 그 양이 매우 적은데 본 논문에서는 『中醫各家學說』(知音出版社. 民國82(1993))에 기재된 내용을 해석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引火歸源의 치법을 살펴보고, 腎氣丸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柯琴의 醫案

[醫案]

柯氏很少撰寫醫案, 僅見『傷寒論翼・孫序』孫介夫氏介紹自己的喘嗽病爲柯氏治癒的經驗. 近人蔡氏引『醫學擧要』記載此案謂 : 孫介夫春間病咯血, 旋愈旋作, 初服芩連而愈, 繼而寒凉不效, 更進參耆而愈, 後用溫補不效, 復用寒凉而不效云云(浙江中醫學院學報 1:40,

1) 김기욱 外15人. 강좌 중국의학사.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p.338-339.

2) 陳大舜 外 2인 엮음. 맹웅재 外 9인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p.22-23.

1983). 『傷寒論翼・孫序』記載柯氏對此案的論述 : “斯未求其本耳. 諸寒之而熱者取諸陰, 所謂求其屬也. 君病陰虛而陽盛, 以寒治之, 陽少衰, 故病少愈耳. 復進寒凉而陽亦虛, 得溫補而病稍愈耳. 再進溫補而陰愈虛, 復進寒凉而陰陽俱虛, 故綿連不解矣. 豈知臟腑之源, 有寒熱溫涼之主哉. 必壯水之主, 以制陽光, 斯爲合法.” 因立腎氣丸方, 一劑而喘嗽寧, 再劑而神氣爽.

[解釋]

柯氏가 지어놓은 醫案은 매우 적어 『傷寒論翼·孫序』에서 孫介夫氏가 소개한 자신의 喘嗽病을 치료한 柯氏의 치료경험이 겨우 보일 뿐이다. 근대 사람인 蔡氏가 『醫學擧要』에 기재된 이 醫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孫介夫氏가 봄에 咯血病이 생겼는데 나았다가 발작했다가 하여, 처음에 黃芩·黃連을 먹고 조금 치유되는 듯싶었는데, 계속해서 寒凉한 약을 복용하니 효과가 없었다. 다시 人參과 黃芪를 사용함에 조금 치유되는 듯싶었는데, 뒤에 溫補한 약을 사용함에 효과가 없었다. 다시 寒凉한 약을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었다.(浙江中醫學院學報 1:40, 1983)

『傷寒論翼·孫序』에 柯氏의 이 醫案에 대한 논술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그 (병의) 근본을 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寒凉한 약을 사용하여) 차게 하였는데 도리어 熱이 나는 것은 모두 (치료의 근본을) 陰에서 취해야 하니, 이것이 이른바 병의 屬한 바(병의 근본 원인)를 구하는 것이다. 그대의 병은 陰虛하여 虛陽이 盛한 것인데 차가운 약으로 치료하니 虛陽이 조금 衰退해져 병이 조금 치유된 것처럼 보인 것일 뿐이다. 또다시 寒凉한 약을 복용하니 陽氣가 또한 虛해졌고, 이러한 상태에서 溫補한 약을 복용하여 병이 조금 치유된 것처럼 보인 것일 뿐이다. 그런데 재차 溫補한 약을 복용함에 陰虛가 더욱 虛해졌고, 또 다시 寒凉한 약을 복용하여 陰陽이 모두 虛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병이 계속 이어져 풀리지 않은 것이다. 어찌 臟腑의 根源에 寒熱溫凉의 主함이 있음을 알겠는가? 반드시 水氣를 主하는 것을 굳세게 함으로써 陽光(虛陽)을 억제하는 것이 합당한 치료법이 되는 것이다.” 이에 腎氣丸의 처방을 세워 1劑[3] 만에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하는 증상이 편안해졌고, 2劑 만에 神氣가 상쾌해 졌다.

[分析]

陰虛陽盛之疾, 本當滋陰抑陽治之, 一再純用寒凉, 由抑其亢陽進而虛其陽氣. 復用溫補扶陽, 以致辛溫生熱, 而傷其陰, 使陰更虛. 過用辛溫所生之熱本爲虛熱, 再用寒凉, 不僅不能除其熱, 反而苦寒化燥, 其熱必更盛, 且寒凉傷陽, 更虛陽氣, 於是形成陰陽兩虛, 虛熱上亢之證. 柯氏用腎氣丸壯水之主, 以制陽光, 實寓‘引火歸原’之義. 此高手治病, 善察病機之範例也.

---

[3] 본문에 나오는 劑의 의미는 현재 한국 한의학에서 통용되는 劑의 의미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고증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1회에 달이는 용량을 뜻하는 것으로 하루 복용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지금의 2첩 정도라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서울. 集文堂. 2004. p.94.

[解釋]

陰虛陽盛의 병은 본래 滋陰抑陽으로 치료해야 하는데, 한번 두 번 오로지 寒凉한 약을 사용하여 그 亢盛한 虛陽만 억누르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 陽氣마저 虛해졌다. 다시 溫補한 약을 사용하여 陽氣를 도와주고자 하였으나 辛溫한 약이 熱을 生함에 이르게 되어 陰을 손상시켜 陰이 더욱 虛해지게 되었다. 辛溫한 성질의 약을 過用하여 생긴 熱은 본래 虛熱이 되는데, 재차 寒凉한 약을 사용하였으니 그 虛熱을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苦寒한 약으로 인해 燥하게 되어 그 虛熱이 더욱 盛하게 되었는데, 또 다시 寒凉한 약으로 陽氣를 손상시켜 陽氣가 더욱 虛하게 되었다. 이에 陰陽이 모두 虛하여 虛熱이 上亢하는 證을 형성하게 되었다. 柯씨는 腎氣丸을 사용하여 水氣를 主하는 것을 굳세게 함으로써 陽光(虛陽)을 억제하였으니, 실로 "引火歸原"의 뜻에 기댄 것이다. 이는 高手의 치법이니 病機를 잘 관찰한 모범적인 사례이다.[4)]

이상의 醫案에서 고찰해 보아야 할 부분은 다음의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구체적인 病因과 病機의 분석이다. 의안에서 나타나듯이 여러 차례 誤治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확한 病因·病機의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陽"字에 대해 구분을 해야 한다. 즉, 의안에 나타나고 있는 "陽"字는 "虛陽"과 "陽氣"로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의안에서는 하나의 "陽"字로 기술이 되어 있다. 셋째, 치유되었다는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 의안에서는 黃芩과 黃連의 寒凉한 약을 처음 복용하였을 때 치유되었다는 표현을 하였고, 2차례에 거친 寒凉한 약의 투약에도 불구하고 병이 호전되지 않자 人參과 黃芪를 사용함에 치유되었다는 표현을 하였다. 의안에서 표현한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의안에서 제시된 證은 "滋陰抑陽"의 치법으로 치료를 해야 했으나, 誤治로 인해 病機가 변화되어 腎氣丸의 처방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滋陰降火의 치법에서 引火歸源의 치법으로 치료법이 변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1) 病因·病機 분석

본 의안에서 처음 제시된 증상은 喘嗽와 咯血의 2가지이다. 喘嗽는 숨을 헐떡이면서 기침을 하는 증상으로 숨을 헐떡이는 喘症이 主가 되고 기침을 하는 증상을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喘息의 증상은 주로 肺와 관련되니, 肺의 宣發·肅降 기능에 문제가 생겨 肺의 絡脈이 逆亂하여 나타난다. 또한, 降濁을 주관하는 足陽明胃經에 문제가 생겨 足陽明經이 逆亂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인체의 水藏으로 진액 대사를 주관하는 腎에 문제가 생겨 上部로 津液이 공급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虛火가 上逆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喘息의 치료법에 있어서도 肺氣를 宣發시키는 치료법이 위주가 되겠으나, 病因에 따라 健脾燥濕法과 滋陰降火法의 치료법도

4) 裘沛然 外 6人. 中醫各家學說. 台北. 知音出版社. 民國 82(1993). p.78.

고려되어야 한다[5]. 한편, 咯血症은 주로 陰이 虛하여 虛火가 盛하거나 肺에 燥熱이 있을 때 발생하는 병증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喘嗽와 咯血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을 陰虛로 인한 相火의 亢盛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다만, 2차례에 걸쳐 寒凉한 약을 투여했음에도 치료가 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할 때 본 의안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陰虛로 인한 相火의 亢盛임을 추론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誤治라는 오류를 범하기 전에 본 의안의 病因을 陰虛熱로 인식할 근거는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 논자는 본 증상들이 봄에 발생했다는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봄이라는 계절적 요소를 중심으로 병인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면 內因과 伏氣溫病이라는 2가지의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內因이라는 전제를 통해 추론해 본다면, 봄은 木에 배속이 되어 升發과 疏散의 기능이 있다. 즉, 봄이 되면 논밭을 갈고 씨를 뿌려 새로운 1년의 농사를 시작하듯이 자연계도 陽이 用事를 하여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게 된다. 인체도 마찬가지로 陽氣가 升發하여 올라와 역동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겨우내 저장하였던 精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겨울 기간 동안 養生을 못하여 精을 갈무리하지 못하면 봄에 이르러 精不足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를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冬三月, 此謂閉藏, 水氷地坼, 無擾乎陽, 早臥晩起, 必待日光, 使志若伏若匿, 若有私意, 若已有得, 去寒就溫, 無泄皮膚, 使氣亟奪, 此冬氣之應, 養藏之道也. 逆之則傷腎, 春爲痿厥, 奉生者少.(겨울의 세 달은 이를 일러 閉藏이라 하니,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지므로 陽氣를 擾亂시키지 말아야 하니, 일찍 잠자리에 들고 늦게 일어나 반드시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志로 하여금 엎드린 듯이 하고 숨긴 듯이 하여 마치 사사로운 뜻이 있는 듯이 하며 이미 얻은 것이 있는 듯이 하고, 찬 것을 멀리하고 따뜻한 것을 가까이 하되 피부로 땀을 많이 흘려 氣로 하여금 지나치게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니, 이것이 겨울의 기운에 應하는 것이니 藏을 기르는 방도입니다. 이를 거스르면 곧 腎을 傷하여 봄에 痿厥을 앓게 되니 生을 받드는 것이 적은 것입니다.)[6]

痿証은 팔다리가 연약해서 힘이 없는 것을 말하며, 특히 아랫도리를 못 쓰고 심지어 살이 시들어 오그라들기까지 하는 병증으로 痿躄이라고 하는 것이다[7]. 이에 대해 胡天雄은 痺證과 비교하면서 痿證은 주로 虛證에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니, 陰不足으로 四肢에 津液 공급이 이루어 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다[8]. 한편, 厥證은 上逆으로 이해할 것인가

---

5)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 編. 類編黃帝內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5.436-439.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14.

7)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 編. 類編黃帝內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5. 422-423.

아니면 四肢厥冷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9] 모두 陰不足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본 의안에서 제기된 喘嗽와 咯血의 증상이 陰不足으로 인해 相火가 上逆하여 나타난 증상이므로 上逆의 의미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와 같이 겨울에 藏精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면 체내에는 陰不足 상태가 야기되고, 이것이 精을 이용하여 활동을 하는 봄의 시절에 이르러 병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陰不足으로 인한 相火의 上逆도 그 가운데 하나의 病機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伏氣溫病이라는 전제를 통해 본 의안의 증상을 분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시기적으로 봄에 발생하는 喘嗽와 咯血을 內傷이 아닌 外感으로 이해한다면, 겨울에 寒邪에 감촉되었던 것이 봄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冬傷於寒, 春必病溫."[10]이라고 하였고, 『素問·熱論』에서도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者爲病溫, 後夏至日者爲病暑, 暑當與汗皆出, 勿止."[11]라고 하여 伏氣溫病에 대해 처음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겨울에 침입한 寒邪가 곧바로 발병하지 않고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봄·여름이 되어 발병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잠복한 寒邪에 의해 陰精이 모손되어 陰精이 부족한 상태가 야기되어 虛陽이 發越하게 되는데, 봄과 여름의 온난한 기후가 더해져 溫病과 暑病이 되는 것이다. 溫病과 暑病은 발병되는 계절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發熱의 상태가 暑病이 溫病보다 더 심하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12]. 이와 같이 봄에 발생하는 溫病은 陰精不足으로 인한 虛火의 上逆이 근본 원인이 되고, 兼하여 봄의 따뜻한 기후가 陰精의 耗損을 더욱 심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虛火의 上逆을 초래하게 된다.

2) 陽字의 구분

본 의안에 기술된 陽字를 모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君病陰虛而陽盛, 以寒治之, 陽少衰, 故病少愈耳.

이 구절에 나타난 陽字는 모두 虛陽을 뜻하는 것이다. 즉, "陰虛而陽盛"에서의 陽字는 陰不足으로 인해 야기되는 虛火(相火)가 亢盛함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陽少衰"의 陽字는 相火로 인해 발생한 熱證을 寒凉한 약으로 잘못 치료할 경우 순간적으로 寒凉한 약이 熱證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역시 虛陽을 지칭하는 것이다.

---

8) 胡天雄 著.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294-295.

9) 厥證은 上逆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四肢厥冷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두 가지 표현이 상반된 듯 하지만 四肢厥冷의 증상이 사지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증세가 심해질수록 體幹 쪽으로 거슬러 올라온다는 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上逆과 厥冷의 의미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醫案에서 제시한 喘嗽와 咯血의 증상이 相火의 上逆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上逆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p.23.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p.117.

12)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 編. 類編黃帝內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5. 392-393.

② 復進寒凉而陽亦虛, 得溫補而病稍愈耳.

이 구절에 나타난 陽字는 인체의 正氣를 뜻하는 것이다. 즉, 陰不足으로 相火가 亢盛한 증을 實熱로 오인하여 2차례에 걸쳐 寒凉한 약으로 치료한 결과, 寒凉한 약으로 인해 인체의 陽氣가 모손되어 虛한 상태로 빠지게 됨을 설명하는 것이다.

③ 再進溫補而陰愈虛, 復進寒凉而陰陽俱虛, 故綿連不解矣.

이 구절에 나타난 陽字도 역시 인체의 正氣를 뜻하는 것이다. 즉, 實熱로 오인하여 寒凉한 약을 투여한 결과 인체의 陽氣가 허손되어 陽氣 부족의 증후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陰不足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외부로 드러난 陽氣 부족만을 고려하여 2차례에 걸쳐 溫補한 약을 투여하여 陰이 더욱 虛해졌고, 그 결과 相火는 더욱 亢盛해져 熱證이 심해지게 되었는데, 이를 또 다시 實熱로 오인하여 寒凉한 약을 사용하였으니 陽을 또 다시 모손시켜 결과적으로 인체의 陰陽이 모두 虛한 상태로 빠지게 된 것이다.

④ 必壯水之主, 以制陽光.

腎氣丸의 치료 의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구절의 陽光은 相火의 亢盛을 뜻하는 것이다. 즉, 陰不足으로 인해 相火가 致盛할 경우 水氣를 보충함으로써 陰精을 충만하게 하여 陰不足으로 야기된 相火의 亢盛을 억제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3) "愈"字의 의미

본 의안에 기술된 愈字를 모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初服芩連而愈, 繼而寒凉不效. …… 君病陰虛而陽盛, 以寒治之, 陽少衰, 故病少愈耳.

이 구절의 "愈"字는 치료법이 病機에 적합하여 치유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病程이 완화되는 듯이 보이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즉, 陰不足으로 야기된 相火의 亢盛을 實熱로 오인하여 寒凉한 약을 쓰게 되면 일시적으로 熱證이 소실되는 듯이 보이지만, 陰不足이라는 病因이 제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증세가 호전될 수 없는 것이다.

② 更進參耆而愈, 後用溫補不效. …… 復進寒凉而陽亦虛, 得溫補而病稍愈耳.

이 구절의 "愈"字도 위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증세가 호전되는 듯이 보이는 것일 뿐임을 표현한 것이다. 즉, 의안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2차례에 걸쳐 寒凉한 약을 투여한 결과 인체의 陽氣를 모손시켜 陽虛證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이때 陰不足을 고려하지 않고 溫補한 약을 투여하여 陽氣를 補하려고 하면 일시적으로 陽氣가 회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재차 溫補한 약을 투여할 경

우 오히려 陰液을 더욱 모손시켜 陰虛의 증세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滋陰降火의 치법에서 引火歸源 치법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

봄에 喘嗽와 咯血이 나타난 병증은 의안 분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陰不足으로 인해 相火가 亢盛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치료법은 滋陰降火의 치법을 써서 부족한 陰液을 보충하여 주고 兼하여 亢盛한 相火를 억제하여 끌어내리는 치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안에 나타나듯이 무려 5차례에 걸쳐 誤治를 한 결과 陰液이 더욱 모손되었고, 아울러 陽氣 마저도 모손된 病機로 바뀌게 되었다.

이 경우에 滋陰降火의 치법을 고집하게 되면, 일정 정도 陰液을 보충할 수는 있지만 陽氣의 모손으로 인해 보충된 陰液이 전신으로 운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濕熱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즉, 津液을 推動하여 전신으로 공급할 수 있는 陽氣가 부족하게 되면 藥氣를 운행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滋陰之劑를 통해 보충된 陰液이 운화되지 못하여 濕의 생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滋陰之劑는 대부분 厚膩한 性의 약이 많으므로 약을 소화시키고 藥氣를 운행시킬 陽氣가 부족한 환자에게는 적당한 치료제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陰陽이 모두 虛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바로 引火歸源의 치법이고, 腎氣丸은 그 대표적인 약물이라고 할 수 있다. 腎氣丸은 六味地黃丸에 附子와 桂枝[13]가 加味된 처방이다[14]. 六味地黃丸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乾地黃[15]·山藥·山茱萸·澤瀉·牧丹皮·茯笭으로 구성되어 腎精을 補하는 처방이다. 즉, 腎氣丸을 "壯水之主, 以制陽光"의 효능이 있다고 하였을 때, 六味地黃丸에 해당하는 약물이 이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 바로 "引火"의 의미인 것이다. 또한, 附子와 肉桂가 들어감으로 인해 陽氣가 虛한 病機를 조절해 주고 아울러 藥氣를 돌려 줄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腎氣丸은 陰陽이 모두 虛한 病機에 적용할 수 있는 처방이고, 바로 이러한 치법을 引火歸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引火歸源의 의미

일반적으로 引火歸原은 腎精不足으로 인해 야기된 陰虛陽盛의 病機를 치료하는 治法으

---

13) 『金匱要略』에서는 桂枝라고 하였지만, 宋代에 편찬된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桂枝를 肉桂로 교체였으니, 이후로 腎氣丸에 桂枝보다는 肉桂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에 논자는 이후로는 肉桂로 논지를 전개해 가도록 하겠다.
中國中醫硏究員 등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907.

14) 宋代의 저명한 小兒科 醫家인 錢乙이 腎氣丸을 變裁하여 六味地黃丸을 만들었기 때문에 六味地黃丸에 附子와 肉桂를 加味했다는 말을 쓸 수 없지만, 後代에 오히려 六味地黃丸을 常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附子와 肉桂를 가미했다는 말을 썼다.
홍원식, 윤창렬 편저.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一中社. 2001. p.271.

15) 『金匱要略』에서는 乾地黃이라고 하였지만, 宋代에 편찬된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乾地黃을 熟地黃으로 교체였으니, 이후로 腎氣丸에 乾地黃보다는 熟地黃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中國中醫硏究員 등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907.

로, 항성한 상화를 引火下行시켜 陰陽이 조화를 이루고 虛火가 上升하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引火歸原의 治法에 대해 柯琴은 腎氣丸을 적용시키고 있는바, 腎氣丸의 方解를 통해 引火歸源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腎氣丸은 六味地黃丸에 附子와 肉桂가 加味된 처방으로, 六味地黃丸에 해당하는 약물은 陰精을 補하게 되므로 "壯水之主, 以制陽光"의 효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肉桂와 附子의 기능과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肉桂와 附子는 溫性의 약물로 溫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많은 醫家들은 肉桂와 附子에 대해 그 효능을 "溫陽化氣"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腎氣丸을 腎陽不足으로 인한 虛勞證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16].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腎精不足으로 야기된 陰虛陽盛한 病機와는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腎氣丸에서 肉桂와 附子의 작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논자는 다음의 두 가지 기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肉桂와 附子는 양기를 도와 腎精을 補하는 藥物을 운행시키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陰不足으로 虛火가 上炎해 있는 병기에 補陰之劑로 腎精을 補하고, 藥氣를 상부로 운행시킬 陽氣가 부족한 경우 陽氣를 보할 藥劑를 加味할 필요성이 있으니, 肉桂와 附子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命門之火를 도와 藥氣를 상부로 운행시켜 上炎한 火를 끌고 내려오는 것이 주된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니[17], 이 기능을 "行水"로 표현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腎氣丸의 六味之劑로 補陰을 하여 급히 陰虛陽盛한 病機를 조절하고, 肉桂와 附子로 腎陽을 도와 "化水"의 작용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8]. 즉, 命門의 火가 衰하여 化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陰虛한 병기가 발생하였으므로, 六味地黃丸으로 陰精을 補하는 것은 標治가 될 수 있고, 肉桂와 附子로 命門의 火를 북돋우어 줌으로써 化水의 작용이 원활히 유지되게 하는 것이 本治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후대에 腎氣丸을 腎陽을 補하는 처방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바로 腎氣丸의 本治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16)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台北. 知音出版社. 民國 83(1994). pp.167-168.

17) 柯琴은 水의 本體는 靜하니 水를 쉬지 않고 운행시켜주는 것이 바로 命門의 火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腎氣丸에서 桂枝(肉桂)와 附子의 작용은 補火에 있는 것이 아니라 命門의 火, 즉 腎氣를 生하여 陰精을 運行시켜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命門之火, 乃水中之陽. 夫水體本靜而川流不息者, 氣之動, 火之用也, 非指有形者言也. 然少火則生氣, 火壯則食氣, 故火不可亢, 亦不可衰. 所云火生土者, 卽腎家之少火, 遊行其間, 以息相吹耳. 若命門火衰, 少火幾於熄矣. 欲暖脾胃之陽, 必先溫命門之火, 此腎氣丸納桂附於滋陰劑中十倍之一, 意不在補火, 而在微生火, 卽生腎氣也. 故不曰溫腎, 而名腎氣, 斯知腎以氣爲主, 腎得氣而土自生也. 且形不足者溫之以氣, 則脾胃因虛寒而致病者, 固痊, 卽虛火不歸其源者, 亦納氣而歸封蟄之本矣."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台北. 知音出版社. 民國 83(1994). p.168.

18) 尤在涇. 尤在涇醫學全書・金匱要略心典.,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9.
"下焦之分, 少陰主之, 少陰雖爲陰臟, 而中有元陽, 所以溫經臟, 行陰陽, 司開闔者也. 虛勞之人, 損傷少陰腎氣, 是以腰痛, 少腹拘急, 小便不利, 程氏所謂腎間動氣已損者是矣. 八味腎氣丸補陰之虛, 可以生氣, 助陽之弱, 可以化水, 乃補下治下之良劑也."

이상에서 腎氣丸의 方解를 통해 引火歸源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引火歸原”에서 火의 의미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實火가 아닌 腎精不足으로 야기된 虛火이다. 그러므로, 淸熱이나 瀉火의 治法을 쓸 수가 없고 “引火”, 즉 上炎한 虛火를 引導하여 내린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한편, “歸原”이라고 하여 근원으로 되돌린다고 하였는데, 인체에서 근원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程林은 腎間動氣라 하였고[19], 柯琴은 命門이라 하였으며[20] 尤在涇은 腎中의 元陽이라고 하여[21], 역대 醫家들은 대체로 命門으로 이해하고 있다[22]. 이상의 내용을 통해 근원자리가 命門이라고 정리하였을 경우, 歸原의 의미가 亢盛된 虛火를 引導하여 命門으로 보내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해 논자는 歸原의 의미를 腎陽의 기능을 도와 근원 즉 命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고 싶다. 즉, 陰精을 보충해 주고 腎陽을 도와줌으로써 命門의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게 해준다는 의미로 “歸原”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23].

Ⅲ. 結論

이상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봄에 발생하는 喘嗽와 咯血症은 陰虛로 인해 相火가 亢盛하여 발생하는 병증이다. 본 症을 陰虛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는 봄이라는 계절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가능한데, 內因과 伏氣溫病의 2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內因이라는 전제를 통해 추론해 본다면, 겨울에 藏精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면 體內에는 陰不足 상태가 야기되고,

---

1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台北. 知音出版社. 民國 83年(1994). p.168.
“程林 : “腰者腎之外候, 腎虛則腰痛, 腎與膀胱爲表裏, 不得三焦之陽氣以決瀆, 則小便不利, 而少腹拘急, 州都之官亦失其氣化之職, 水中眞陽已虧, 腎間動氣已損, 是方益腎間之氣, 氣强則便溺行而少腹拘急亦愈矣.””

20)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台北. 知音出版社. 民國 83年(1994). p.168.
“柯琴 : “命門之火, 乃水中之陽. 夫水體本靜而川流不息者, 氣之動, 火之用也, 非指有形者言也. 然少火則生氣, 火壯則食氣, 故火不可亢, 亦不可衰. 所云火生土者, 卽腎家之少火, 遊行其間, 以息相吹耳. 若命門火衰, 少火幾於熄矣. 欲暖脾胃之陽, 必先溫命門之火, 此腎氣丸納桂附於滋陰劑中十倍之一, 意不在補火, 而在微生火, 卽生腎氣也. 故不曰溫腎, 而名腎氣, 斯知腎以氣爲主, 腎得氣而土自生也. 且形不足者溫之以氣, 則脾胃因虛寒而致病者, 固痊, 卽虛火不歸其源者, 亦納氣而歸封蟄之本矣.””

21)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9.
“下焦之分, 少陰主之, 少陰雖爲陰臟, 而中有元陽, 所以溫經臟, 行陰陽, 司開闔者也. 虛勞之人, 損傷少陰腎氣, 是以腰痛, 少腹拘急, 小便不利, 程氏所謂腎間動氣已損者是矣. 八味腎氣丸補陰之虛, 可以生氣, 助陽之弱, 可以化水, 乃補下治下之良劑也.”

22) 命門에 대한 논쟁은 明代에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니, 그 내용을 하나로 통일시키기는 어렵고,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左腎右命門說, 둘째 兩腎間 七節之旁說, 셋째 兩腎의 總稱說, 넷째 産門 혹은 精關說, 다섯째 腎間動氣說이다.
홍원식・윤창렬 편저.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一中社. 2001. pp.353-354.

23) 方正均. 滋陰降火와 引火歸源 治法의 의미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2). pp.33-35.

이것이 봄에 精을 이용하여 활동을 하는 시절에 이르러 병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陰不足으로 인한 相火의 上逆도 그 가운데 하나의 病機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伏氣溫病이라는 전제를 통해 본 의안의 증상을 분석해 본다면 겨울에 寒邪에 감촉되었던 것이 봄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잠복한 寒邪에 의해 陰精이 모손되어 陰精이 부족한 상태가 야기되어 虛陽이 發越하게 되는데, 봄의 온난한 기후가 더해져 溫病이 봄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溫病은 陰精不足으로 인한 虛火의 上逆이 근본 원인이 되고, 兼하여 봄의 따뜻한 기후가 陰精의 모손을 더욱 심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虛火의 上逆을 초래하게 된다.

2. 滋陰降火를 적용할 수 있는 병증을 誤治하여 陰陽이 모두 虛한 증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滋陰降火의 치법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는 津液을 推動하여 전신으로 공급할 수 있는 陽氣가 부족하게 되어 藥氣를 운행시킬 수 없으므로, 性이 厚膩한 滋陰之劑는 약을 소화시키고 藥氣를 운행시킬 陽氣가 부족한 환자에게는 적당한 치료제가 될 수 없다.

3. 引火歸原의 治法은 腎精不足으로 야기된 陰虛陽盛의 병기에 적용할 수 있는 治法으로, 陰精을 보충해 줌으로써 引火를 하고 腎陽의 기능을 도와 命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治法에 상용하는 약제로는 腎氣丸을 들 수 있는데, 六味之劑가 포함되어 陰精을 보충하여 引火를 하게 된다. 이 처방에 함유된 肉桂와 附子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으니, 첫째는 命門의 火를 도와 藥氣를 상부로 운행시키는 行水의 작용이다. 또 다른 면으로는 六味로 腎精을 補하는 標治를 하고, 肉桂와 附子로 命門의 火를 북돋우어 주어 化水의 작용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니 이를 本治라 할 수 있다. 후대에 腎氣丸을 腎陽을 補하는 처방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本治에 의미를 두어 이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Ⅳ. 參考文獻

1. 김기욱 外15人. 강좌 중국의학사. 서울. 대성의학사. 2006.
2. 陳大舜 外 2인 엮음. 맹웅재 外 9인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3.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서울. 集文堂. 2004.
4. 裘沛然 外 6人. 中醫各家學說. 台北. 知音出版社. 民國82(1993).
5.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 編. 類編黃帝內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5.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7. 胡天雄 著.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8. 中國中醫硏究員 등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9. 홍원식, 윤창렬 편저.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一中社. 2001.
10.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台北. 知音出版社. 民國 83(1994).
11.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2. 方正均. 滋陰降火와 引火歸源 治法의 의미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17(2).